

버럭 04월호

Contents

발달장애인 3차 자조모임 '보드게임'	2
자립생활기술훈련 2차 영화관람 '레디 플레이어 원'	4
자립생활주택'김OO씨 개별ILP와 생일파티'	6
신입사원 김지연씨를 소개합니다.	8
강북센터의 함께 일하고픈 직원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칼럼]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의 의미와 장애인 차별 철폐'	11
이달의 정보	12
이달의 시	14
강북센터 CMS자동이체 신청서 / CMS납부 목록	15
광고	16



3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보드게임’

주영경

2018년 4월 18일(수) 14:00 ~ 17:00 3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보드게임’ 프로그램이 수유역 월드보드게임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스텝을 제외한 13명의 참여자가 함께 모여 보드게임 설명을 들었다.



3~4명씩 팀을 나눠 게임종류를 정해보았다. 몇 명을 빼고는 대부분 처음 보드게임을 접하기 때문에 약간은 낯설어하는 모습이 보였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을 추천해드릴게요~”

친절한 보드게임 사장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며 게임을 추천해주셨다.

“이건 어때요?”

“00씨~ 이걸 이렇게 쳐서 공을 넣는거야! 잘하네~”

“우리 다른 게임도 해볼까?”

여기저기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렇게 1시간 쯤 지나자 조금씩 지루해하는 참여자들이 나타났다.

이용시간이 끝나고 만족도조사를 진행하며 오늘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예전에도 몇 번 와봤는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해서 더 좋았다.'

'보드게임카페는 처음인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서둘러 정리를 한 뒤, 수유역 인근에 새로 개업한 두끼(즉석떡볶이) 식당으로 향했다.

떡볶이를 입맛에 맞게 매운맛, 짜장맛 등 다양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참여자들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떡과 각종 재료를 넣고 함께 떡볶이를 만들어 보았다.

한명은 음료수, 한명은 추가로 넣을 재료 등 서로 소통하며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말 그대로 폭풍흡입! 음식을 너~무 많이 담아온 팀은 혹여나 남기지 않을까 걱정이 됐지만 건더기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해치워버렸다.

같이 게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서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힐링이 된다'라는 말이 문득 떠올랐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웃음 가득한 자조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담당자의 마음을 전해본다.



자립생활기술훈련 2차 영화관람 ‘레디 플레이어 원’

김지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2018년 4월 5일(목), 수유 롯데시네마에서 자립생활기술실천의 일환인 2차 영화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관람한 영화는 ‘레디 플레이어 원’으로 상영시간은 1시 55분~4시 15분으로 수유 롯데시네마 14층 6관에서 140분 동안 상영되었다.

영화관람 전 영화 티켓 구매 및 참여자 체크를 위해 롯데시네마 10층에서 1시 20분까지 모이기로 하였는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모두 늦지 않게 도착하여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 참여자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출석체크와 동시에 복지카드를 거두어 영화 티켓을 예매하였다. 참여자분들은 이를 동안 내린 비에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에도 영화 관람을 한다는 기대감에 추위 따위는 잊은 듯 보였다.

영화 티켓 구매 후 참여자들에게 공지사항 및 영화 관람 시 에티켓을 설명해 드렸다. 다들 집중하여 공지사항을 들었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간단히 공지사항을 알린 후 오늘 관람할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어떤 장르인지 설명하였다. 오늘 관람하는 ‘레디 플레이어 원’은 액션, SF 장르의 영화로 암울한 현실과 달리 가상 현실 오아시스에서는 누구든 원하는 캐릭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영화 소개를 해드리니 몇몇 참여자들은 사실 자기는 SF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같이 영화 관람하는 게 기대된다고 하였다.

그 후, 남은 시간을 활용해 다 같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었다. 영화 관람을 한다는 기대감에 참여자들 모두 미소를 활짝 지어 보였다. 단체 사진을 찍은 후 활보가 가능한 분들은 에스컬레이터로, 보장구를 이용

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이동하였다. 상영관 입장 전 다시 한 번 출석체크를 한 후 6관으로 입장하여 예매해 놓은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상영관의 맨 뒷좌석을 예매하여 보장구를 이용하는 분들은 좌석 뒤의 통로에 앉으셨고, 보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각자 편한 자리에 앉아서 영화 시작을 기다렸다. 영화 시작 전 참여자들에게 다과를 나눠드리고 나니 곧 영화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듯 영화관 조명이 일제히 꺼지면서 영화가 시작되었다.

영화 시작됨과 동시에 참여자들은 영화에 집중하였고, 준비된 다과도 드시면서 영화 관람을 즐겼다. 또한, 액션, SF영화를 즐겨보지 않는다고 하였던 참여자들도 영화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140분의 영화 관람이 끝난 후, 다 같이 10층에 모여서 만족도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만족도 조사지를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 영화에 대한 감상을 얘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몇몇 참여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었지만, 막상 보니 새롭고 재밌었다고 하였으며, 그 외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를 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참여자들이 모두 선정영화에 만족하고 다음에도 또 참석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여주셔서 프로그램을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다음에도 재밌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자립생활주택 > 개별 ILP 프로그램 & 생일파티

김다희



3월 29일 입주자 김00씨의 생일을 맞아 롯데타워를 방문하였다. 마침 김00씨의 개별 ILP 프로그램도 3월 중 계획을 잡고 있어 생일날에 맞춰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김00씨와 사전에 입을 모았고, 전망대 관람, 쇼핑몰 구경 및 선물 구입, 점심외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당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였고, 차가 많이 밀린 탓에 한 시간 이십분의 시간이 지나 롯데타워에 도착을 할 수 있었다.

롯데타워에 도착하여 사전에 알아보두었던 식당을 향해 이동을 하였고, 쇼핑몰의 넓은 규모의 탓에 헤매며 식당을 찾았고, 이동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 도착하였다.

점심식사 후 전망대에 들어서 티켓을 끊었고 직원 분들의 안내에 따라 이동을 하였으며, 일반 관람객들이 많은 탓에 가까운 곳의 이동은 에스컬레이터 밖에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돌고 돌아 휠체어 전용 엘리베이터를 찾아 전망대에 무사히 들어 갈 수 있었다. 전망대 입장부터 퇴장까지 롯데타워의 직원 분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무사히 관람할 수 있었고, 김00씨는 전망대를 몇 번이고 돌아보며,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전망대에 위치한 유리바닥 코스도 활동보조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훤히 보이는 바닥에 앉아 신기 하신 듯 웃어 보이시며 재미있어 하시는 모습이였다. 아쉽게도 미세먼지 탓에 깨끗하게 멀리 있는 건물들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제일 높은 전망대에 올라 구경을 했다는 것 자체로 김00씨에게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전망대 테라스에서 친절하신 외국인 여성분을 만나 단체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무사히 관람을 마칠 수 있었다. 관람 후 시계도 구매하시고 하루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활동보조인 선생님을 바라보며 입주자 김00씨는 신나고 즐거웠다는 말씀과 함께 '일 년에 한 번 정도 오면 좋을 것 같아' 라고도 말씀 하셨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 장애인 콜 택시를 불러잡아타고 주택으로 향하였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였다. 앞으로 상반기에 한 번 남은 개별 ILP 프로그램도 무사히 힘차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강북센터 신입사원 김지연을 소개합니다.

김지연

안녕하세요.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올해 2월부터 함께하게 된 신입사원 김지연입니다.

2월에 입사했지만 2개월이 지난 4월이 돼서야 인사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번이 사회로 내딛는 첫발걸음이라 두려움도 많고 설렘도 많았습니다.

여러 감정이 섞인 채로 첫 출근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등의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곤 하였는데 막상 다녀보니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대학생 때 우연히 가입하게 된 봉사동아리와 사회복지사이신 큰이모의 영향이 크게 미쳤습니다. 봉사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하여 조금씩 알게 되었으며 더불어 사회복지사로 종사 중인 큰이모의 추천으로 사회복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대학생 때 장애인재활원에서 봉사를 하면서 장애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행복으로 다가왔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강북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알려주신 것은 열심히 배우고 제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센터의 함께 일하고픈 직원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경

안녕하십니까?

햇살이 따스한 봄날 스치는 바람에도 봄 내음이 전해지는 4월입니다.
저는 이렇게 봄의 시작을 알리는 좋은 계절에 신입사원이 된 정진경이라 합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첫 출근을 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한 바가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용기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으로 현재를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받는 것이 익숙했던 저에게
사회복지사라는 타이틀은 어찌 보면 커다란 전환점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짧은 기간
타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며 제 자신이 장애인임과 동시에 사회복지사로
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과의 관계, 또는 동등한 직원으로서 비장애인들과의 관
계를 함께 겪으며 그 속에서 제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어렵듯이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한 가지 확실히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도움을 바라지도 말 것과 스스로의 자기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로의 자립이 성공적이며 함께 발전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북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열
심히 배워나가겠으며 앞서 느낀 바를 토대로 스스로의 자기개발을 통해 제 자신의 가
치를 높여 성공적인 사회로의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함께 일하고픈
직원으로서 센터와 함께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의 의미와 장애인 차별 철폐

전난희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의 날’이란 어떤 의미일까?

정부는 1972년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1981년부터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또 20일을 전후한 약 일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평소와 같은 달로 지내고 싶지만, 장애인에게 쏟아지는 관심덕분(?)에 장애인들에게 4월은 항상 불쾌하고, 불편한 달이다. 어떤 곳에서는 기념식을 하니 참여하라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나 장애인을 위해 열심히 일한 유공자를 포상할 테니 추천을 해달라고 한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장애인의 날 행사장에 와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기념품도 받아가라는 것이 내용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들을 보면 장애를 입은 것을 축하라도 하는 듯한 양상들이다. 나는 학창시절 전공과목인 복지행정론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오늘 장애인의 날 축하해’란 말까지 들어본 적도 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란 생각이 들었고,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교수에게 나는 ‘복지행정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은 아닌 것 같다, 장애를 입은 것이 어떻게 축하받을 일이나' 라고 말하며 불쾌한 나의 기분을 전달한 적이 있다. 이렇듯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이 단순히 불쌍하고 도와줘야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을 구성, 매년 집중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수용시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3대 적폐 폐지를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 목표다.

장애인들이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하며 지난 3월 26일부터 청와대 인근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중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계-정부 간의 민관협의체들이 구성되어 운영 중이나 가장 중요한 '예산 확대' 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 를 보내왔다. 이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올라와 있다. → 국민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3003>

4월 20일을 뺀 나머지 364일을 '장애인의 날' 로 만드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라 생각한다.

자료출처-

- ◆ <http://www.clipartkorea.co.kr>
-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0403141504050772>
- ◆ <http://bemino.com/detail.php?number=12055&thread=03r01>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견해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달의 정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서비스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한국도로공사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필요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앞으로 인권위는 서비스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단체와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해 12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적서비스 미제공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보고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개선계획 등을 올해 초 요구했다. 이어 수차례 협의를 거친 뒤 도로공사가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4월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hi-쉽마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휴게소를 찾아 유선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방문할 휴게소에 도착시간, 본인의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휴게소 내 매장 및 음식주문, 화장실 안내 등을 위한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전국고속도로 휴게소 인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효적 이행을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 테스트를 비롯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사출처-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0>

올해 수면다원검사·양압기 치료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건강심 의결...자부담 20%, 최대 14만3520원

올해 상반기 중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 및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므로 급여 적용 요구가 높았다.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나 그간 비급여로 운영(관행가 70만~100만원)되어 왔다.

이에,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검사실 비용 포함해 기존 의원 57만8734원에서 본인부담 20%를 적용하면 11만740원이다. 병원의 경우 11만970원, 종합병원 12만7780원, 상급종합병원 14만3520원 등이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되는 경우 약물치료, 외과적 수술(구개인두성형술 등)은 현재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양압기는 제외되어 이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및 기타 무호흡(P28.4)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급여품목은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이며,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는 이중 20%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양압기 대여료는 품목에 따라 월 1만5200원~2만5200원의 자부담이 들며, 마스크는 1만9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환자상태에 따라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90일 동안 일정 기준 이상 사용이 가능한지(순응 여부)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기사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3&NewsCode=002320180820174728822490>

너에게 쓴다.

전양희



꽃이 피었다고 너에게 쓰고
꽃이 졌다고 너에게 쓴다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길이 되었다
길 위에서 신발 하나 먼저 다 닳았다

꽃 진 자리에 앞 피었다 너에게 쓰고
앞 진 자리에 새가 앉는다 너에게 쓴다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내 일생이 되었다

마침내는 내 생 풍화되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 수납업체 및 목적 (수납업체 기재란)			
수납업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납목적	회원회비
대표자	정종남	사업자등록번호	210-82-68864
주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신청정보	신청인	예금주와 관계 : ()	연락처
	납부금액	<input type="checkbox"/> 고정금액 (원) <input type="checkbox"/> 변동(추가 계약내용에 따름)	납부일 매월 25 일 *미납시 일, 일 재출금

금융거래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생년월일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의 이용목적 : 호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할 [] 동의하지 않음 []
------	-----------------	---

활용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호성에프엘에스㈜,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nc.co.kr/제휴사 소개 메뉴 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할 [] 동의하지 않음 []
------	---------------	--

자동이체 동의여부 동의지 안내 : 호성에프엘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회비 납부를 위해 호성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18년 04월 회비납부 명단

김낙현 김석현 김숙이 김용자 김은미 김은순 김재환 박동열
 박민숙 박지훈 배소영 손연숙 안해영 오재준 윤두선 이동현
 이상훈 이영훈 이하용 임상욱 장민정 전난희 정종남 정주영
 주영경 최미경 최윤숙 허효숙 홍점표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제12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한올타리 배움터' 참여자를 모집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제12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를 진행합니다.

사 업 명	제12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한올타리 배움터'
기 간	2018년 5월 11일(금) ~ 2018년 6월 29일(금)
일 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장 소	강북센터 교육실 1707호
대 상	장애 인권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참 가 비 용	무료
신청 서류	신청서, 복지카드사본(신규참여자)
접 수 방 법	강북센터 홈페이지 http://kbcil.co.kr 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kbcil@daum.net 또는 사무실(수유역 가든타워 1119호) 방문접수
기 타 문 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2-908-7776 ✉ kbcil@daum.net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 학교 강의일정

회차	강 의 날 짜	강 의 명	강 사
1강	5월 11일(금)	장애학과 당사자주의	진지혜(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강	5월 18일(금)	장애인의 지난 안전 교육	최규훈(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3강	5월 25일(금)	탈 시설과 인권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강	6월 1일(금)	장애인의 건강권	윤동현(라내아울 한의원 원장)
5강	6월 8일(금)	발달장애인중심의 자립생활실천방안	정희경(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6강	6월 15일(금)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우주형(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7강	6월 22일(금)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손연숙(숭실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교수)
8강	6월 29일(금)	장애인의 노동권	강우진(진)승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과 교수)

※ 상기일정과 강사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지하철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Tel : 02-908-7776 FAX : 0303-0799-1758

